



2023 교회 표어

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! (요 10:11)

주일 예배 순서	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
*기 원	목 도
*신앙고백	사도신경
*찬 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복의 근원 강림하사(찬28)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
기 도	최의순 장로
성경봉독	요한복음 7장10-36절
특별찬양	진실하신 친구 -찬양대-
설 교	“믿지 못하는 이유” -박현수 목사-
광 고	인도자
찬 양	주 앞에 이렇게 나와
*봉헌기도/축도	박현수 목사

*표는 일어서서
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(Zelle 온라인헌금: highland.giving@gmail.com)

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.

- 금요 찬양 예배: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
- 토요 새벽기도회: 매주 토요일 오전 6시
- Youtube QT 방송: 화요일, 목요일

P C A 하이랜드교회
한인중부노회
HIGHLAND PRESBYTERIAN CHURCH

담임목사 박현수 (Rev. Jason Hyunsoo Park, Pastor)

820 S. Milwaukee Ave. Vernon Hills, IL 60061 ☎(847) 634-6033
www.highlandchurch.com (web) highlandchurch1977@gmail.com (교회)
parkhyunsoo@hotmail.com (담임 목사) hellofromhighland.com (EM Web)

◀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!▶

2023년 할로윈이 지나갔습니다. 저는 할로윈을 싫어합니다. 할로윈이라는 날이 주는 의미 때문이기도 하지만, 이 날의 위험성 때문이기도 합니다. 아이들이 괴상한 옷을 입고, 기괴한 분장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영화 속에서 범죄에 이용되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섬뜩합니다. 실제로 할로윈 때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캔디에 마약 성분을 첨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. 할로윈이 되면 염려스럽습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, 오히려 할로윈이 안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. 아이들 학교에서도 의상과 분장에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혐오스럽거나 무서운 분장도 안 되고, 칼이나 총 같은 무기 모양의 소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.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“Trick or Treat”의 시간을 Village 마다 정해서, 정한 시간 외에는 캔디를 얻으러 다닐 수 없습니다. 옛날에는 캔디를 주지 않는 집 문에 계란을 던지곤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는 불이 꺼져 있는 집에는 방문하지 않습니다. 교회나 여러 단체에서 Trick or Treat을 대체할 행사들을 엮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. 올해는 눈이 오는 이상한 날씨도 한몫 했습니다. 저희 집 방범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서너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왔다가 사람이 없으니 돌아갔고, 그 이후에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.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니 작년과 올해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어졌다고 아쉬워하지만, 할로윈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. 세상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확인합니다. -박목-

◀ 광고 ▶

- 당회: 오늘 예배 후 중고등부실
- 추수감사주일 예배: 11/19 주일 오전 11시. 전교인 연합으로 드립니다
특별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
- 친교: 김영봉 장로 가정, 다음주- Aaron Wu, Brian Chae 집사 가정
- 협력기도: 권순조 권사, 남궁운자 집사(허리), Sophia Cho
- 다음주 기도: 김태종 장로/ 금요 찬양 예배 기도: 배석봉 집사
- 11월 뒷정리: EM

◀ 교회를 섬기는 분들 ▶

담임 목사 박현수
E.M 목사 홍정모(Abraham)
교육강도사 신준식(James, 유초등부)
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종
성가지휘 강수경
반주 Adam Kastler
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

◀ 후원 선교사 ▶

MTW - 강충만
캄보디아 - Nuth Sydeth
NOVO(NK) - 서예레미야
니카라구아 - 정연효
REI - James Kang
Global Hope - 조용중
*우리는 교인의 1%를 선교로 보내는 1% 챌린지 교회입니다!